

이기는 삶

말의 품격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줏간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지요.”

박상길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베어 주었다.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나이든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가 거북했다.

“박서방, 여기도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고맙습니다.”

기본 좋게 대답한 박상길은 고기를 잘라 주는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 자기가 받은 것보다 갑절은 되어 보였다. 그 양반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쩌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나?” 그러자 박상길이 대답했다.

“네, 그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요,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다.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 바로 말이다.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이는 내뱉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흔히 사람들은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아줌마! 아가씨! 저기요! 는 그나마 양반의 말이다. 어이! 야! 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야, 임마! 라고 소리를 지른다. 사장이나 종업원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천한 일을 한다고 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직히 그런 사람과는 대중음식점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내 낮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박상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여 또는 자신의 신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다. 흔히 사람들은 대중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아줌마! 아가씨! 저기요! 는 그나마 양반의 말이다. 어이! 야! 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야, 임마! 라고 소리를 지른다.

사장이나 종업원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천한 일을 한다고 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직히 그런 사람과는 대중음식점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내 낮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박상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여 또는 자신의 신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여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힘이 없어도 누군가 칭찬을 하면 힘이 난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난다. 땀이 나게 운동을 하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진다.

에너지 보충에도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희생하고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근육을 키우면서 에너지 보충의 기본일 것이다.

!!!몸을 아름답게~ 당당하게!!!

효능: 균형감과 중심 잡는 능력 향상. 집중력, 하체 근력 강화. 옆구리 근살 제거, 보디라인을 아름답게 해준다.

주의: 중심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동작①: 양발을 어깨넓이로 확장한다. 양팔을 깎지를 꺾서 높게 들어 올린다.

동작②: 호흡을 내쉬며 상체를 옆으로 기울인다. 20초 유지, 좌우 3회 반복.

!!발목 잡고 뒤로 쪽~ 골반 불균형 해소!!

동작③: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접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동작④: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접은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고 중심을 잡는다. 10초 유지, 좌우 3회 반복.*



격암유록 新해설 제25회

정도령이 하는 해인의 역사는 사람을 죽지 않게 변화시키리라

聖山尋路(三) 성산심로

白石石光輝天下列光見而 석백석광휘천하리광견이 夜到千艘百萬旗 아도천소백만기 頃刻岸到 경각안도 三都用庫安閑之日 삼도용고안간지일 天日月再生 천일월재생인 人人得地不死永生 인인득지불사영생 鄭堪豫言 정감예언 有智者生 無智者死 유자자포 무자자사 貧者生富者死 빈자생부자사 是亦真理矣 시역진리의

地底何知天牛耕田 지민하지천우경전 水源長遠無凶之患 수원장원무흉지공 食者永生三豐之穀 식자영생삼풍지곡 虛妄之說世人難知 허망지설세인난지 有智者飽 無智飢 유자자포 무자기 人人心覺天上之穀 인인심각천상지곡 晝夜不息勸農作業 주야불식근농작업 一日三食飢餓死 일일삼식기아사 三旬九食不飢生 삼순구식불기생 天下萬物呼吸之者 천하만물호흡지자 行住坐臥天呼吸歲歲 행주좌와천호세세

절 눈은 일곱 마지기요, 즉 하늘의 농사는 북두칠성(칠두 七斗)이 짓는다는 말이다.

북두칠성 중의 별이 하늘의 참된 농사를 지으니 바로 문무성이나라. 곡토진촌(曲土辰寸)은 농사(農寺)의 파자. 땅의 백성들이 어찌 알리오.

하늘 소(정도령)가 마음 밭을 가는데 생명수의 근원이 길고 멀지만 흥년이 없이 풍년만 드니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삼풍지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을 허망한 말로만 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나라.

지혜로운 자는 배불리 먹지만 무지한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으니 사람들이여, 하늘의 곡식을 부디 마음속 깊이 깨달을지어다. 밤낮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늘농사를 지어라.

세상 곡식은 하루 세끼를 먹어도 마지막엔 굶어 죽고 하늘곡식은 한 달에 아홉 끼만 먹어도 굶주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하 만물과 호흡하는 자여! 가고 오거나, 집에 있을 때나, 앉거나 눕거나, 향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세세토록 불러야 하나라.

石井水 석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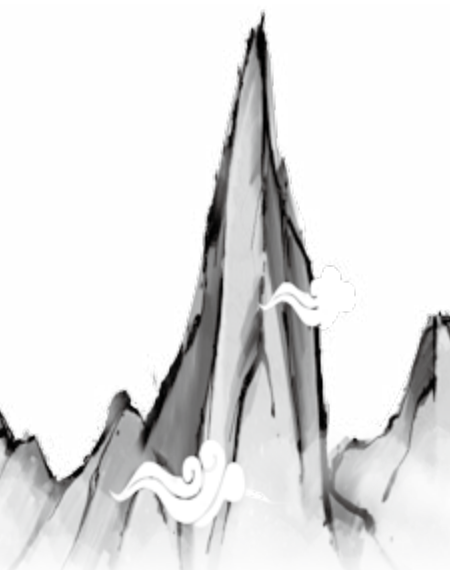
日出山天井之水 일출산천정지수 掃之塵塵天神劬 소지성진천신검 一揮光線滅魔 일휘광선멸마 藏暗追天氣光彩電 장암추천기광채전 天命歸眞能何將 천명귀진능하장 利在石井生命線 이재석정생명선 四肢內裏心泉水 사지내리심천수

해트는 동방 한국에서 하늘의 우물물인 생명수가 솟아나 온 세상의 터러운 죄악을 씻는다.

천신검을 한 번 휘두르니 번쩍이는 살파 광선이 마귀들이 박멸 소망되고 어둠을 몰아내는 하늘기운은 번개가 번쩍이는 듯하다. 천명이 진인(정도령)에게 돌아오니 장차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로움은 석정수에 있으니 곧 생명수요 사지(팔다리)와 몸속 깊이 흐르는 심천수일세.

世人何事轉悽然 세인하사전처연 祈天禱神開心門 기천도신개심문 水源長遠天農田 수원장원천농전 農土辰寸七斗落 농토진촌칠두락 牛性在野牛鳴聲 우성재야우명성 人生秋收審判日 인생추수심판일 海印役事能不無 해인역사능부무 脫劫重生變化身 탈겁중생변화신 天生有姓鄭道令 천생유성정도령 世間再生鄭氏王 세간재생정씨왕 一字縱橫木人姓 일자종횡목인성



世人心閉永不變 세인심폐영불각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슬프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음 문을 열어보세.

생명수의 근원이 길고 먼 하늘농사의 밭은 북두칠성이 짓는 참 생명수의 농사이네.

우성 하나님(정도령)이 들에 계시니 소 울음소리(사람 몸이 죽지 않는 진리의 말씀)가 들리리라. 이때가 인생을 추수하는 심판의 때다.

하나님이 하시는 해인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탈겁 중생하여 사람 몸을 죽지 않게 변화시키리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 때엔 정도령이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정씨 왕이나라.

한 일(-)자를 가로 세로로 하면 십(十)자이니 십승인 정도령은 나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성씨(한 일자를 가로 세로로 한 성씨)로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으니 영영 깨닫지 못하는구나.*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Immortal Valley

지혜를 얻는 법

영생 길은 지혜가 없으면 가기가 무척 어렵다. 무지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들어도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안목이 짧다는 것이다.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결말을 생각하지 못한다.

만사를 잘 관찰하라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잘 관찰함으로써 온다. 자신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것은 계속해야 하고, 어떤 것은 그만 두어야 할지 알게 된다. 일의 결말을 미리 내다보는 자는 실패할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감히 자신에게는 실패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신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은 지속되어야 하고, 유익하지 않은 일은 끊어야 한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무지한 청맹과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격언은 진리다. 반대생활도 마찬가지다. 무턱대고 반대생활을 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오는 행위는 반대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유익한 결과란 경제적인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은혜를 유지하는 것에 유익함을

말한다.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 보통사람들보다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나 무심코 한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인과응보는 진리이자 철칙이다.

말과 행동 전에 세 번 생각하라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위담을 수 없다. 말하기 전에 미리 세 번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려한 후 말과 행동을 하라고 구세주는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깨닫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후 깨닫는다. 열정이 넘쳐 흐르다고 영생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혜는 모든 것을 잘 관찰함으로써 생긴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막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 한다. 그 래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89-9343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6142-1738136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